

# 부모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Influence of Parents' Family-of-Origin Experiences on Parenting Behaviors

: Focusing on Parents with Young Children

중앙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 전공

석사 전주혜\*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부교수 박정윤\*\*

교수 김양희

조교수 장영은

조교수 어성연

Dept. of Family Welfare & Housing Environment, Chung-Ang Univ.

Master : Jeon, Joo-Hye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Associate Professor : Park, Jeong-Yun

Professor : Kim, Yang-Hee

Assistant Professor : Chang, Young Eun

Assistant Professor : Auh, Seongyeon

---

## <Abstract>

This purpose of study is the effects of parents' family-of-origin experience on their parenting behaviors of 260 parents with child(ren) aged between 3-7.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ather's with higher monthly average income showed more frequent responsive parenting behaviors. Mothers with different age, income, employment status, employment of their mother in the family of origin, and current family types showed different levels of limit-setting, intimacy, and responsiveness in their parenting. Second, both parents' experiences from their family of origin were correlated their parenting behaviors. Third,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mothers were found to give their children more reasonable guidance if they experienced more independence from their parents and more acceptance from their mothers, if they raise more than two kids, and if their family of origin was an extended type. Fathers who perceived higher family of health, more acceptance by their mothers showed more limit setting parenting behavior.

---

▲주요어(Key Words) : 원가족 경험(family-of-origin experience),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s)

---

\* 주저자 : 전주혜 (E-mail : jjuny47@naver.com)

\*\* 교신저자 : 박정윤 (E-mail : pjy4838@cau.ac.kr)

## I. 서론

아동이 태어나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접하게 되는 최초의 사회적 환경이자, 아동의 성장 발달을 위한 직접적인 환경은 가정이다. 또한 전 생애를 걸쳐 부모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환경을 접하게 되면서 사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한다. 부모와 자녀는 생활의 많은 부분을 함께 함으로써, 부모는 아동의 강력한 모델이 된다. 부모의 역할에 따른 행동이나 언어는 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자녀의 발달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즉, 부모의 자녀 양육행동은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Becker, 1964; Schaefer, 1965; Rohner, 1980).

최근 아동발달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관점과 전생애적 관점이 강조되면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Luster & Okagaki, 1993). 부모의 어릴 적 경험을 비롯하여 현재의 가족관계에까지 관심이 모아지면서 Belsky(1984)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의 특성과 아동의 성격, 그리고 사회적 환경의 세 차원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 중에서도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을 예측하는 부모의 특성과 관련하여 부모 자신의 아동기의 영향, 과거 기억이나 경험과 아동행동과의 연결을 탐색하기 시작하면서, 어렸을 때 주관적으로 경험한 대인관계의 경험이 내적작업모델을 형성하여 성장한 후의 이성발달(Bowlby, 1973)과 새로 구성된 가족에서의 부부관계(유은희, 1991; Hazen & Shaver, 1987; Cohn et al., 1992), 그리고 부모-자녀관계(Sroufe et al., 1985; Bretherton et al., 1991; Benoit & Parker, 1994)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세대간 관련성에 대해 다세대 치료이론을 주장하는 Bowen(1978)은 원가족을 중요시하고 원가족의 영향이 세대에 거쳐 반복되는 점에 주목하였다. 가족문제 접근 시 원가족까지 확대하여 살펴볼 것을 주장하면서 세대에 걸친 부모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보웬이 주장한 '원가족 정서체계'에서의 설명과 같이 현재 가족 간의 상호작용은 그들의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세대반복이 되므로(Nichols & Schwartz, 2001), 양육행동 역시 세대 반복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즉, 부모는 자신의 원가족에서 경험한 관계, 태도, 기대, 정서 또는 행동양식을 현재 가족 내에서 부모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Benson et al., 1993).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경험에 대한 연구들(이진선·정문자, 2007; Simons et al., 1993)에서도 부모의 아동기 경험이 지적되고 있다. 어린 시절 원가족에서 부모가 자신에게 보인 양육경험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건강한 가족에서 성장한 개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정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김순기, 2001).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수준과 원가족에서 부모와 경험한 상호관계의 질은 개인의 정서적 건강뿐만 아니라 결혼 적응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정란, 2005; Fine, 1988; Couillard, 1990). 뿐만 아니라 원가족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현재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Belsky, 1984; Crowell & Feldman, 1988). 반면,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양육을 받은 성인들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데(Belsky & Vondra, 1993), 이는 부모의 아동기 때 이루어진 경험들은 자신의 자녀양육행동과 관련성이 있고 세대간 전이가 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녀 양육행동이 세대전수가 되는 연구는 다수 있었지만 선대전수가 되는 원가족의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더욱이 자녀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중요성만 강조되었으나, 현대사회로 오면서 자녀양육에서의 아버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부모 모두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대상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 가정의 부모는 서로 다른 성장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모의 성에 따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력이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에 미치는 원가족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가족의 영향과 관계를 여러 변인들을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원가족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자녀들에게 미래의 원가족 경험이 되어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현재 원가족의 중요성을 밝혀 올바른 양육행동과 건강한 원가족 경험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각각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행동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각각의 양육행동에 사회인구학적변인과 원가족 경험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자녀양육행동에 대한 이해

양육행동이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아동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Becker, 1964).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은 양육차원과 유형을 구성하는 요인이 상이하며, 학자에 따라서 몇 가지 차원의 양극의 연속선으로 개념화되고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의 구성요인들을 살펴보면, 애정, 자율, 수용, 온정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과 적대, 통제, 거부와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손승희, 2002), 크게는 온정적인 정도와 통제적인 정도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을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신의 경험과 상황의 영향을 받아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고 정의하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모든 태도 및 행동으로서, 합리적 지도, 한계설정(제한성), 애정성, 반응성의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모변인을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아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아동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 발달 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격이나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도현심 등, 2005).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자율성을 많이 격려할수록 아동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더 사교적이고, 친사회적이며, 주도적인 경향이 있고, 어머니가 독립성을 부여할수록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주도적이라고 하였다(박주희, 2001). Cohn(1990) 역시 부모의 양육행동이 합리적이고 일관되며 신뢰를 주고 애정적일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높게 평가 된다고 하였다. Hetherington과 Park(1993)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유를 허용하면서 적절한 한계를 가지고 확고한 훈육과 애정이 잘 결합된 권위 있는 양육태도를 보일 때, 아동은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가지며, 자아존중감이 높고, 정서적 안정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유능한 아동으로 길러진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일수록, 수용적이며 자율적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최경자, 2002; 최경옥, 2004; 송기현, 2005; 장미영, 2006)도 있다. 반면, 어머니가 아동에게 과하게 제한을 하거나 지나치게 허용을 하는 경우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반응적이지 못하고, 그 외의 상호교환과 호혜적인 상호작용능력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Lieberman, 1977).

이러한 양육행동이 자녀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

는가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로부터 더 온정적이며, 자율적인 양육을 많이 받으며, 남자는 여아에 비해 활동성이 커서 부모로부터 통제를 많이 경험하면서 키워진다. 이는 사회화 과정에서 남아에게는 성취위주로 양육하고 여아에게는 인성위주로 양육하는 것으로 아동의 성에 따라 양육의 강조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Block, 1983). 최기원(2004)연구에서 어머니는 남아에게 신체, 인지, 사회정서 발달 관련 양육행동을 더 많이 강조하였으며, 남아에게 성취기대가 높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Someya, 2000). 여아는 남아보다 더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애정적, 적극적 참여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했으며, 과보호 양육행동은 낮게 지각한다고 했다(문세민, 2005). 한편,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들(박성연·임희수, 2000; 김영미, 2001; 안지영·박성연, 2002; 윤은미, 2004; 김미숙, 2005; Lytton & Romney, 1991; Johnson, 2001)도 있다. Johnson(2001), 박성연 등(2000) 연구에서는 어린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자녀의 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자녀가 지각한 양육행동은 부모의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어느 문화권에서든 부모는 이성의 자녀와 동성의 자녀에게 서로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Devereux et al., 1969; 최난정, 2003), Baumrind(1978)는 아버지가 딸보다 아들에게 더 엄격하게 대하는 반면,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Martin(1975)은 자녀에게 아버지 양육태도는 어머니보다 더 엄격하고 위협적이며, 처벌적으로 지각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친절하고 관용적이며 도움을 잘 제공하는 것으로 지각된다고 하였다. 오성심과 이종승(1982)의 연구에서도 자녀는 어머니가 애정적이라고 지각했으며, 아버지는 성취지향적, 합리적, 자율적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아버지의 양육행동보다 더 애정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 부모역할에서 자녀양육의 많은 부분을 어머니가 책임지고 있으며, 어머니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규정되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다.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를 배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성에 따라 원가족에서의 영향이 자녀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원가족의 변인을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 2. 원가족의 경험에 대한 이해

원가족(family of origin)이란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성

장해 오는 동안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소속감을 가지는 가족으로, 결혼한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이전까지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인 소속감을 가져온 가족을 말한다(이종원, 2002; 김경자, 2004).

Bowen(1978)은 가족에서의 성장과 가족관계의 역사를 중요시 하는 개념으로 원가족을 보았고, 현재의 가족 관계에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즉, 현재의 관계상의 문제는 원가족에 존재하던 각본에 따라 형성되는데 원가족 내에서 습득한 상호작용 방식이 결혼한 자녀가 이룬 핵가족에 그대로 반복되며,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경험한 사건들은 새로이 만든 자신의 가족에서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원가족 경험'은 개인이 성장하는 동안 접하게 되는 특별한 경험들이며, 원가족 내의 가족원들 각자의 인성과 인종적, 문화적 유산이 독특하게 결합된 것으로(이재연·최영희, 1991), 원가족에서의 경험은 현재 핵가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원가족의 경험은 현재의 관계, 정서, 그리고 행동방식을 결정짓는 원천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자신의 원가족으로부터의 경험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Belsky & Vondra, 1993).

원가족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가족문제에 대한 영향이나 개인의 심리적 특징 및 적응, 가족의 기능성 측면과의 관련성에 대해 다수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부부적응 및 갈등과 관련된 원가족 변인연구(이종원, 2002; 권정란, 2005; 강명자, 2007), 가족체계기능성을 강조하는 연구(전영주, 1998; 김태현·김경자, 2004), 가족관계적 측면에서의 연구(조소희·정혜정, 2008; 장선웅, 2008), 개인의 심리적 특성, 정서적 안녕과 적응에 관한 연구(김미라, 2001; 김순기, 2001; 양진선, 2004),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에 관한 연구(최난경, 2003; 조은수, 2007; 하상희, 2007; 진달남, 2008)들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원가족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부부체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모자녀관계에까지 연결시킨 연구는 최근에야 이루어지고 있다.

Boszormenyi-Nagy와 Ulrich(1981)는 자녀와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아이의 조부모가 아이의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해 놓은 맥락 속에서 발달하게 된다고 보았다. 회전판(revolving state)의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의 윗세대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판에 박힌 행동을 아랫세대인 자신의 자녀에게 되풀이 한다고 설명하면서, 원가족으로부터 세대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최진숙, 2006). 이러한 세대전이에 따른 원가족 경험은 크게 원가족 건강성, 부모와의 애착, 자아분화, 양육행동으로 볼 수 있다(정미경, 2003; 정문자 등, 2004; 광소현, 2005; Deklyen, 1992).

우리가 가족 안에서 맺게 되는 상호작용은 과거 그들의 원가족에서의 경험을 반복하게 되는데(Nichols & Schwartz, 2001), 건강한 가족에서 성장한 개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정서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았다(김순기, 2001). 어릴 때 자신의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경우 현재 부모 역할 시 심리적인 안정에 영향을 받아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자신감으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경우에 자녀를 동일시하여 자신이 충족하지 못한 정서들을 자녀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과보호하거나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았다(광소현, 2005). 이처럼 원가족 건강성과 부모의 아동기 양육경험, 자기분화에 따른 원가족 경험은 세대간 전이를 통해 현재 가족체계를 비롯하여 자녀의 양육행동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된다.

### 3. 원가족 경험과 자녀양육행동

원가족 경험에 대한 연구는 크게 부부관계를 비롯한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와 현재의 핵가족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부모의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는 자녀들의 장래 결혼생활과 부부적응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델이 되며(장선웅, 2008),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는 가족 기능의 안정적 바탕을 제공하고 유능한 부모역할을 하고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결혼생활의 만족과 지원이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Belsky & Isabella, 1985; Cox et al., 1989; Dickie & Matheson, 1984; 김희주, 1997 재인용). 또한, 부부관계의 질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부부관계가 원만하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반면, 부부관계가 불만족스러우면 자녀양육도 소홀하게 된다(Belsky & Isabella, 1985; Esaterbrooks & Emde, 1990)는 연구에서 이러한 점이 뒷받침된다.

이처럼 원가족건강성과 자녀양육행동과의 직접적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지만,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들의 원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성 지각은 개인의 건강한 정서와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부모자녀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녀의 양육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Morris(1980)는 자녀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어머니는 불안정하게 애착된 어머니보다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자신의 어머니가 양육적이며 정서적으로 지지해주었다고 지각하였다. 과거 아버지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경우에는 자녀에게 합리적 지도, 성취, 적극적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를 나타내며,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경우, 권위주의적 통제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승, 2000).

또한, 아동기 때 자신의 부모로부터 수용될수록 현재 자녀와 안정된 애착을 하며(Rick, 1985), 부모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으며 수용적인 양육을 경험하였을수록, 현재 자녀에게 온정적이며,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반면, 아동기에 자기 부모로부터 거부당하고 동시에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할 때는 체벌적이고 화가 난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연·전현진, 1999; 이진선·정문자, 2007). 이는 아동기 때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고 있으며(Belsky, 1984; Crowell & Feldman, 1988), 부모로부터 지나치게 통제를 당하거나, 거부당하던 경험이 있으면 본인 역시 자녀에게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정문자, 1996; 최난경, 2003; Davies & Cummings, 1994).

원가족 분화수준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원가족 분화수준이 낮은 부모는 불안감이 높아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부모-자녀관계가 덜 친숙하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의 개별화가 미약하여 삼각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Hoffman, 1984). 원가족에서 정서적 단절을 많이 경험할수록 부모는 고립된 소외에서 오는 불안으로 현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융합을 초래하여 자녀와 갈등적인 상호작용을 한다(유은희·전춘애, 1995). 또한, 원가족과의 융합이 심한 부모는 아동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허용 또는 과보호 하거나(정문자, 1996; Davies & Cummings, 1994), 거부적이고 지배적인 양육행동(김순재, 1996; 이미숙, 2005)을 하는 등 자녀를 부적절하게 양육한다고 밝혔다(김수연, 2001).

반면, 원가족의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단절이 적고,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온정적·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합리적이고 자녀에게 일관성 있는 양육행동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희선, 1995; 최난경, 2003). 이처럼 자기분화에 따른 원가족과의 정서적 관계를 자신이 형성한 핵가족 내에서 양육행동으로 세대 간 전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육행동은 가족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으며(허기순, 2004), 부모의 원가족으로부터의 경험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자녀양육행동과 관계를 가지며 양육행동의 유사성을 나타낸다(정혜승, 2000; 전효정, 2003; 원자희, 2004; Bretherton, 1991; Radojevic, 1992; Ward & Carlson, 1995; Fonagy et al., 1996). 전효정(2003)은 어머니-유아 애착의 세대간 전이에 대한 연구에서, Bowlby(1973)의 주장과 같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부모의 양육행동의 유형을 자신의 자녀에게 반복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지했다. 아동에게 부당한 대우나 방임을 하는 부모는 자신의

원가족에게서 부당한 대우와 부정적인 양육을 경험했다는 보고들도 많이 있다(Altemeier et al., 1982; 박성연 등 역, 1995, 재인용). 반면, 과거 외조모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세대간 전이되는 부분과 전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연구(장혜자, 2000) 결과도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행동은 부모 자신의 원가족 경험의 반복이라 볼 때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행동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원가족의 영향력과 자녀양육행동과의 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연구로 한정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 모두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모 자신의 원가족에서 어머니, 아버지와의 경험에 따른 자녀양육행동에 차이가 있으리라 예측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만 3~7세의 첫자녀를 둔 부모로, 아버지, 어머니 각각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법으로 실시하였다. 2009년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7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분석이 부적절한 내용과 부실 기재된 자료 1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60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종합해보면,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이며, 가족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대상자가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첫 자녀가 유아기 자녀인 부모들로, 중상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표 1> 참조).

#### 2. 측정도구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먼저 부모변인으로 성별, 연령, 첫 자녀의 성별 및 연령, 자녀수, 교육수준, 종교, 사회경제적 수준, 소득만족정도, 직업 및 취업유무, 맞벌이 유무, 결혼상태, 가족유형을 살펴보고, 원가족 변인으로는 출생순위, 어린 시절 부모의 취업유무, 원가족형태, 원가족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을 포함하였다.

##### 2) 원가족 경험

###### (1) 원가족 건강성

원가족 건강성 척도는 Hovestadt와 그의 동료들(1985)이 제작한 Family of Origin Scale(FOS)을 기초로 최현미(1997)의 원가족 척도(the Family of Origin Scale-55:FOS-55) 중 원가족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건강성을 측정하는 16문항을

&lt;표 1&gt;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 인	집 단	아버지	어머니	변 인	집 단	아버지	어머니	
		n(%)	n(%)			n(%)	n(%)	
연 령	30세 이하	8( 7.3)	24(16.1)	첫 자녀 연령	만3세	28(25.5)	35(23.3)	
	31~35세	39(35.5)	77(51.7)		만4세	25(22.7)	31(20.7)	
	36~40세	50(45.5)	44(29.5)		만5세	31(28.2)	49(32.7)	
	41세 이상	13(11.8)	4( 2.7)		만6세	20(18.2)	29(19.3)	
첫자녀 성별	남 아	49(44.5)	70(46.7)	만7세	6( 5.5)	6 (4.0)		
	여 아	61(55.5)	80(53.3)	총 자녀수	외동아	35(31.8)	54(36.0)	
교육수준	고졸 이하	27(24.5)	33(22.0)		두 명	69(62.7)	87(58.0)	
	전문대 졸	8( 7.3)	27(18.0)		세명 이상	6( 5.5)	9( 6.0)	
	대 졸	58(52.7)	77(51.3)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 .9)	3( 2.0)
	대학원 이상	17(15.5)	13( 8.7)	100~200만원		8( 7.3)	11( 7.4)	
직 업	전문직, 관리직	34(30.9)	24(16.0)	200~300만원		27(24.5)	35(23.5)	
	사무직	24(21.8)	18(12.0)	300~400만원		30(27.3)	41(27.5)	
	생산, 단순노무직	10( 9.1)	4( 2.7)	400~500만원		20(18.2)	31(20.8)	
	기술, 서비스직	15(13.6)	11( 7.3)	500만원 이상		24(21.8)	28(18.8)	
	자영업	14(12.7)	7( 4.7)	소득만족정도		불만족	42(38.2)	41(27.5)
	전업주부	-	83(55.3)		보 통	49(44.5)	78(52.3)	
	기 타	13(11.8)	3( 2.0)		만 족	19(17.3)	30(20.1)	
종 교	무 교	58(52.7)	54(36.2)	맞벌이 유무	유	40(36.4)	60(40.0)	
	기독교	29(26.4)	55(36.9)		무	70(63.6)	90(60.0)	
	불 교	13(11.8)	17(11.4)	결혼상태	초 혼	110(100)	146(97.3)	
	천주교	8( 7.3)	23(15.4)		기타(재혼, 사별)	-	4( 2.7)	
	기 타	2( 1.8)	-		출생 가족 유형	핵가족	71(67.0)	116(78.4)
가족유형	부모+자녀	92(83.6)	128(85.3)	확대가족		25(23.6)	23(15.5)	
	조부모+부모+자녀	13(11.8)	21(14.0)	한부모가족		10( 9.4)	9( 6.1)	
	기 타	5( 4.5)	1( .7)	원가족 부모 취업 유무	부	108(99.1)	144(97.3)	
출생순위	장남/장녀, 외동아	54(49.5)	62(41.3)		무	1( .9)	4( 2.7)	
	차남/차녀	18(16.5)	51(34.0)		모	유	46(42.6)	77(51.3)
	막 내	37(33.9)	37(24.7)			무	62(57.4)	73(48.7)
원가족 경제 수준	가난한편	34(30.9)	37(24.7)	원가족 부모 취업 유무	부	108(99.1)	144(97.3)	
	보 통	57(51.8)	91(60.7)		무	1( .9)	4( 2.7)	
	부유한편	19(17.3)	22(14.7)		모	유	46(42.6)	77(51.3)
					무	62(57.4)	73(48.7)	

\* 각 항목별 무응답을 제외하였으므로 사례수의 차이 있음

사용하였다. 개인이 자신의 원가족 건강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원가족건강성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alpha=0.93$  이었다.

## (2) 부모의 아동기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아동기 부모자녀관계를 파악하는 척도는 원가족에서 부모가 자라오면서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바를 측정하는 Epstein(1983)의 부모-또래-척도(Mother-Father-Peer Scale : MFPS)를 전현진(1996)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래 부모-또래 척도(MFPS)는 총 70문항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순수하게 부모의 아동기 경험으로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경험만을 측정하고

자 부모이상화 차원과 또래상호작용 차원을 제외한 부모 각각의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차원 12문항과 수용 대 거부 차원 9문항을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의 아동기 부모자녀관계 경험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부모에 의해 독립성이 더 많이 조장되었으며, 더 많이 수용되었던 것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아동기 때 모와의 관계 경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0.84$ 이었고, 부와의 관계 경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0.82$ 이었다.

## (3) 자기분화

본 연구에서의 자기분화척도는 전현진(2002)이 개발한 척도로서 개인이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부모와 맺었던 정서적 관계를 파악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이는 한 개인이

자신의 원가족에서 미해결된 정서적 애착을 해결하려하지 않고 물리적 거리를 두어 회피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정서적 단절'(12문항), 가족 안에서 부부간에 긴장이 발생하면, 긴장 해소나 완화를 위해 부부 중 한명이 부부문제에 자녀를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삼각화'(7문항), 한 개인이 원가족으로부터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분리를 경험한 것을 의미하는 '정서적 분리'(7문항)가 포함된다.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가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와의 분화 정도에 대해 각각 응답하게 되어 있어 총 52문항이 사용되었다.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원가족 분화경험을 긍정적으로 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분화에 대한 신뢰도로, 모와의 분화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0이었고, 부와의 분화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78이었다.

### 3) 양육행동

부모양육행동척도는 구체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들로 구성된 Crase와 그의 동료들(1987)의 IOWA 부모양육행동척도(IPBI :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 Mother Form)을 홍계옥(1994)이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양육행동의 문항들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수용될 수 있는 행동과 수용될 수 없는 행동, 자녀의 문제해결 행동 및 신체적 애정 표현하는 친밀성과 반응을 해주는 행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총 26 문항으로, 합리적인 지도(8문항), 한계설정(5문항), 애정성(8문항), 반응성(5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5점 Likert척도로 양육행동의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양육행동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1이었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인과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로 검증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각각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 행동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1) 아버지의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

아버지의 관련변인들간의 상관관계에서 원가족 경험과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원가족 건강성과 아동기 때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경험, 자기분화의

각 하위요인은 .20-.53 사이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버지가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하고, 부모로부터 수용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분리를 경험하며, 정서적 단절을 적게 경험할수록 자녀의 양육행동에 있어, 더 합리적이며, 적절한 한계 설정과 함께 친밀하고 애정적이며, 자녀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로부터의 삼각화 경험은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원가족에서 어머니로부터 삼각화를 적게 경험할수록, 한계설정, 애정성을 비롯한 양육행동 전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아버지로부터의 삼각화를 적게 경험할수록 한계설정을 제외한 나머지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로부터 아동기 때 독립성을 부여받은 경험은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성 조장이 자녀의 합리적 지도에만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이를 제외한 부모로부터의 독립성 조장은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는 것 보다는 부모에게 거부되기보다는 수용되는 것이 부모자녀관계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 2) 어머니의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관련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원가족 건강성과 원가족 부모로부터의 아동기 양육경험은 반응성 양육행동을 제외한 합리적 지도, 한계설정, 애정성의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중 원가족의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분리 경험은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원가족에서 아버지와의 삼각화 경험은 애정성의 양육행동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반면,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단절과 어머니와의 삼각화 경험은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원가족에 대한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원가족의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분리를 경험하였을수록, 그리고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독립성과 수용성을 부여받았을수록, 자신의 자녀에게 일정한 규칙을 설정하여 행동을 제한하며, 합리적인 지도와 함께 친밀하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 2.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각각의 양육행동에 사회인구학적변인과 원가족 경험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1)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 지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아버지의 합리적 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lt;표 2&gt; 아버지의 원가족경험과 양육행동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원가족 건강성	모_독립성	모_수용	부_독립성	부_수용	모_정서적 단절	모_삼각화	모_정서적 분리	부_정서적 단절	부_삼각화	부_정서적 분리
합리적지도	.36***	.25*	.42***	.16	.36***	.40***	.15	.38***	.41***	.26**	.41***
한계설정	.29**	.09	.29**	.17	.22*	.34***	.21*	.30**	.33***	.18	.39***
애정성	.38***	.12	.37***	.05	.30**	.42***	.30**	.39***	.41***	.30**	.38***
반응성	.43***	.14	.44***	.18	.42***	.53***	.15	.39***	.52***	.20*	.43***
양육행동전체	.45***	.18	.46***	.16	.40***	.51***	.26**	.45***	.51***	.29**	.48***

\*p&lt;.05, \*\*p&lt;.01, \*\*\*p&lt;.001

&lt;표 3&gt; 어머니의 원가족경험과 양육행동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원가족 건강성	모_독립성	모_수용	부_독립성	부_수용	모_정서적 단절	모_삼각화	모_정서적 분리	부_정서적 단절	부_삼각화	부_정서적 분리
합리적지도	.20*	.24**	.19*	.30***	.17*	.09	.06	.25**	.06	.08	.23**
한계설정	.20*	.25**	.14	.34***	.20*	.07	.10	.16	.12	.07	.27**
애정성	.28**	.16	.23**	.23**	.23**	.16	.10	.27**	.14	.20*	.29***
반응성	.06	.03	.09	.07	.09	.14	.13	.18*	.09	.12	.17*
양육행동전체	.25**	.22**	.22**	.31***	.23**	.15	.08	.29***	.13	.16	.31***

\*p&lt;.05, \*\*p&lt;.01, \*\*\*p&lt;.001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에는 모델 I에서 유의미한 영향변인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델 II에서는 원가족 건강성( $\beta=.27, p<.01$ )은 정적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변인으로 밝혀졌다. 모델 III에서는 원가족에서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으로 어머니의 독립성 조장( $\beta=.24, p<.05$ )과 어머니의 수용( $\beta=.23, p<.05$ )이 유의한 영향변인이 밝혀졌다. 모델 I에 비해 총 10%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총 22%로 설명된다. 모델 IV에서 투입된 원가족에서의 아버지와 관련된 변인들 중 부의 독립성 조장( $\beta=.30, p<.001$ )은 유의미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12%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총 24%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원가족에서 부모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고, 어머니로부터 수용되어질수록, 어머니는 자녀에게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영향력은 2개 이상의 검증 모델에서 의해, 총 자녀수와 원가족유형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원가족의 경험을 비롯하여, 현재 총 자녀수가 둘 이상일수록, 어머니의 원가족유형이 확대가족일수록, 현재 자녀에게 더 합리적인 지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한계설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아버지의 경우, 모델 I에서 아버지의 출생순위( $\beta=.30, p<.01$ )와 원가족에서 어머니의 취업유무( $\beta=-.25, p<.05$ )는 한계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장남이거나 외동인 아버지의 원가족 어머니가 전업주부이었던 경우, 자신의 자녀에게 행동을 적절히 제한하는 양육행동을 보였다.

모델 II에서 원가족 건강성( $\beta=.35, p<.01$ )이 유의하게 아버지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을 예측하였으며, 설명력은 모델 I에 비해 10% 증가하여, 총 29%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모델 III에서는 원가족에서 모의 수용성( $\beta=.26, p<.05$ )이 정적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총 29%의 설명력을 보였다. 모델 IV에서는 원가족에서 부와 관련된 변인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출생순위( $\beta=.30, p<.01$ )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진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원가족에서 어머니로부터 수용되어질수록, 아버지의 출생순위가 장남일수록 자녀에게 한계를 설정해 주고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원가족의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원가족의 부모로부터 수용되어지며, 삼각화를 적게 경험할수록, 원가족의 아버지로부터 과잉보호를 받았을수록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적극적인 애정표현을 하며 더 친밀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한계설정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델 I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모델 II에서는 원가족 건강성( $\beta=.19, p<.05$ )이 유의미한 영향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총 13%의 설명력을 보였다. 모델 III에서 투입된 원가족에서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으로 독립성 조장( $\beta=.21, p<.05$ )이 유의미한 영향변인으로 밝혀졌다. 모델 IV



<표 4>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양육행동 - 합리적 지도							
	아버지				어머니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β				β			
연령	.01	.05	.04	.05	.06	.05	.08	.07
첫자녀성별	-.02	.04	.01	.03	.16 <sup>+</sup>	.15 <sup>+</sup>	.16 <sup>+</sup>	.14
첫자녀연령	.03	.03	.11	.01	.08	.13	.07	.11
총자녀수	-.02	.03	-.05	.04	-.12	-.16 <sup>+</sup>	-.20*	-.18*
교육수준	.02	.03	.04	.00	.05	.07	.03	.10
종교유무	.02	.05	.03	.03	.06	.05	.04	.06
월평균소득	.13	.12	.02	.13	.04	.02	.07	-.00
소득만족정도	.04	.01	-.03	-.02	.10	.08	.09	.07
직업	-.03	-.06	-.03	-.03	.18	.08	.08	.05
맞벌이유무	-.07	.03	.08	.00	-.10	-.05	-.04	-.00
가족유형	.05	.06	.04	.03	.07	.06	.08	.08
출생순위	.10	.05	.10	.10	.02	.06	.06	.05
원가족유형	-.11	-.13	-.15	-.09	-.15 <sup>+</sup>	-.18*	-.18*	-.12
모취업유무	-.12	-.14	-.12	-.11	.04	.03	.01	-.01
원가족경제수준	.08	.01	.05	.05	.00	-.06	-.04	-.04
원가족건강성		.39**				.27**		
모의 독립성 조장			.21 <sup>+</sup>				.24*	
모의 수용			.37**				.23*	
모분화_삼각화			-.01				-.15	
부의 독립성 조장				-.05				.30***
부의 수용				.37				.16 <sup>-</sup>
부분화_삼각화				.15				.07
F	.51	1.37	1.67	1.35	1.08	1.61	1.88*	2.07*
R <sup>2</sup>	.08	.21	.27	.23	.12	.17	.22	.24
ad.R <sup>2</sup>		.06	.11	.06		.07	.10	.12
ΔR <sup>2</sup>		.13**	.19***	.15**		.05**	.10**	.12**

\*p<.05, \*\*p<.01, \*\*\*p<.001, <sup>+</sup>p<.10

에서는 아버지의 독립성 조장(β=.28, p<.01), 아버지의 수용(β=.19, p<.05) 순으로 한계설정에 대한 설명력을 21%로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가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았을수록, 아버지에게 수용되어질수록, 어머니는 자녀에게 규칙을 정해주며, 자녀의 행동을 적절히 제한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아버지의 애정성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델 I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모델 II에서는 원가족 건강성(β=.43, p<.001)이 가장 높은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총 29%를 설명하였다. 모델 III에서는 원가족에서 어머니와 관련된 경험 중 어머니의 수용성(β=.37, p<.01)과 어머니와의 삼각화(β=.22, p<.05) 순으로 아버지의 애정성을 총 31% 설명하였다. 모델 IV에서는 원가족에서 아버지와

경험과 관련된 변인 모두 유의미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수용(β=.37, p<.01), 아버지의 독립성 조장(β=-.28, p<.05), 아버지와 삼각화(β=.26, p<.05)의 순으로 아버지의 애정성 양육행동을 총 30% 설명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모델 I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델 II에서는 원가족 건강성(β=.27, p<.01)이 유의미한 영향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총 19%의 설명력을 보였다. 모델 III에서는 원가족에서 어머니로부터의 수용성(β=.20, p<.05)이 유의미한 영향변인으로 밝혀졌다. 모델 IV에서는 원가족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경험 중 부의 수용(β=.20, p<.05), 아버지와 삼각화(β=.19, p<.05)의 순으로 어머니의 애정성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I에 비해 설명력이 11% 증가하여 총 25%를 설명하였다. 어머니가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수용되어지고, 삼각화를 적게 경험할수록, 자녀에게 더 애정표현을 많이 하며, 친밀하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아버지와 어머니의 한계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양육행동 - 한계설정							
		아버지				어머니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β				β			
일 반 적 특 성	연 령	-.01	.02	-.00	.00	.03	.02	.05	.03
	첫자녀성별	.16	.21 <sup>+</sup>	.19 <sup>+</sup>	.19 <sup>+</sup>	.05	.04	.06	.02
	첫자녀연령	.01	.00	.02	-.01	-.06	-.02	-.05	-.03
	총자녀수	.03	.07	.06	.07	-.02	-.04	-.08	-.07
	교육수준	-.06	-.04	-.07	-.08	-.06	-.05	-.06	-.02
	종교유무	-.04	-.01	.02	-.02	-.06	-.07	-.07	-.07
	월평균소득	-.14	-.14	-.13	-.13	.04	.03	.05	.01
	소득만족정도	.17	.15	.13	.13	.14	.13	.11	.12
	직 업	-.10	-.13	-.13	-.10	-.05	-.13	-.10	-.19
	맞벌이유무	-.03	.06	.05	.02	-.08	-.05	-.07	.02
	가족유형	-.14	-.13	-.15	-.15	.11	.10	.11	.11
	출생순위	.30**	.26*	.27*	.30**	-.07	-.04	-.03	-.04
	원가족유형	-.14	-.16	-.14	-.13	-.04	-.05	-.05	-.01
	모취업유무	-.25*	-.26*	-.21 <sup>+</sup>	-.22 <sup>+</sup>	.13	.13	.10	.10
	원가족경제수준	.11	.04	.07	.09	.06	.01	.05	.01
	원가족건강성		.35**				.19*		
	모의 독립성 조장			-.02 <sup>+</sup>				.21*	
모의 수용			.26*				.08		
모분화_삼각화			.18				.02		
부의 독립성 조장				-.04				.28**	
부의 수용				.23 <sup>+</sup>				.19*	
부분화_삼각화				.15				.03	
F	1.29	2.07*	1.84*	1.59	.95	1.17	1.21	1.82*	
R <sup>2</sup>	.19	.29	.29	.26	.10	.13	.15	.21	
ad.R <sup>2</sup>		.15	.13	.10		.02	.03	.10	
ΔR <sup>2</sup>		.10**	.10*	.07 <sup>+</sup>		.03*	.05	.11**	

\*p<.05, \*\*p<.01, <sup>+</sup>p<.10

4)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아버지의 반응성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델 I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모델 II에서는 원가족 건강성(β=.52, p<.00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첫 자녀 성별(β=.22, p<.05), 맞벌이 유무(β=.21, p<.05), 원가족유형(β=-.20, p<.05)의 순으로 자녀의 애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23% 증가하여 전체 변량의 36%를 설명하였다. 모델 III에서는 원가족에서 어머니의 수용(β=.48, p<.001)과 맞벌이 유무(β=.21, p<.05)가 높은 영향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설명력은 총 34%로 나타났다. 모델 IV에서는 원가족에서 아버지의 수용성(β=.48, p<.001)이 유의하게 아버지의 애정성을 예측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총 34%를 설명하였다.

즉, 아버지가 원가족 건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거부되지 않고 수용되어졌을수록, 지금 자신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즉각적이고 민감한 반응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반응성 양육행동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V. 결 론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에서부터 사회환경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서 원가족 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부모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는 아버지가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하고, 부모로부터 수용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분리를 경험하며, 정서적 단절을 적게 경험할수록 자녀의 양육행동에 있어 더 합리적이고 적

<표 6>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양육행동 - 애정성							
		아버지				어머니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β				β			
일 반 적 특 성	연 령	.03	.07	.05	.04	-.10	-.11	-.10	-.10
	첫자녀성별	.05	.12	.09	.12	.16 <sup>+</sup>	.14	.14	.11
	첫자녀연령	-.02	-.02	-.00	-.08	-.09	-.04	-.08	-.06
	총자녀수	-.16	-.11	-.12	-.11	-.07	-.10	-.10	-.10
	교육수준	.07	.08	.05	.02	.00	.02	.00	.06
	종교유무	.03	.06	.11	.05	.10	.09	.11	.12
	월평균소득	-.07	-.08	-.06	-.05	.11	.10	.13	.07
	소득만족정도	.20	.17	.16	.19	.11	.09	.11	.10
	직 업	.04	.00	-.01	.03	-.04	-.14	-.12	-.15
	맞벌이유무	-.05	.07	.06	-.02	.15	.21	.20	.24
	가족유형	-.16	-.14	-.17 <sup>+</sup>	-.18 <sup>+</sup>	-.06	-.08	-.06	-.07
	출생순위	.16	.10	.10	.14	-.03	.01	-.01	.01
	원가족유형	-.12	-.14	-.12	-.07	-.04	-.06	-.07	-.02
	모취업유무	-.17	-.19	-.12	-.14	-.02	-.02	-.02	-.03
	원가족경제수준	.03	-.05	-.03	-.00	.11	.04	.06	.05
	원가족건강성		.43***				.27**		
	모의 독립성 조장			-.07				.08	
	모의 수용			.37**				.20*	
모분화_삼각화			.22*				-.01		
부의 독립성 조장				-.28*				.15 <sup>+</sup>	
부의 수용				.37**				.20*	
부분화_삼각화				.26*				.19*	
F	.89	2.11*	2.07*	1.89*	1.31	1.83*	1.48	2.18**	
R <sup>2</sup>	.14	.29	.31	.30	.14	.19	.18	.25	
ad.R <sup>2</sup>		.15	.16	.14		.09	.06	.13	
ΔR <sup>2</sup>		.15***	.17***	.16**		.05**	.04	.11**	

\*p<.05, \*\*p<.01, \*\*\*p<.001, <sup>+</sup>p<.10

절한 한계 설정과 함께 친밀하고 애정적이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냈다. 이는 원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부모의 돌봄을 높게 지각하고, 부모의 과보호를 낮게 지각할수록, 현재 자신의 자녀의 돌봄 정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장선웅, 2008)와 비슷한 맥락으로 원가족 경험이 자녀 돌봄을 위한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독립성을 조장 받은 경험은 자녀양육행동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원가족 부모로부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도록 지도받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한 행동들은 양육행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자기분화수준에서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된 개체로 분리를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는 어머니가 자신의 원가족에 대한 건강성을 높게 지각하고, 원가족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분리를 경험하고, 원가족 부모로부터 독립성과 수용성을 경험하였을수록, 자신

의 자녀에게 일정한 규칙에 대한 적절한 한계설정과 더 합리적이고, 친밀하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 이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독립성이 조장되고, 수용적인 양육을 경험하였을수록, 자신의 자녀에게 온정적·수용적인 양육행동이 많이 한 박성연·전현진(1999), 이진선·정문자(2007)의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가족 부모와 정서적으로 분리된 경험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최난경(2003)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분리 경험이 온정·수용 행동과 거부·제재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같다. 반면, 원가족과 적절한 정서적 분리가 되지 않은 부모는 자녀를 더 거부적이고 지배적으로 양육하며, 통제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순재, 1996; 김수연, 2001; 이미숙, 2005)는 본 연구에서 정서적 분리 경험에 따라 온정적,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원가족 내 부모와의 경험들이 안정적이고 긍정적일수록, 현

<표7>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양육행동 - 반응성							
		아버지				어머니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β				β			
일 반 적 특 성	연령	-.08	-.04	-.04	-.03	-.06	-.06	-.06	-.06
	첫자녀성별	.14	.22*	.17	.19 <sup>+</sup>	.02	.01	.00	-.01
	첫자녀연령	.07	.06	.11	.03	.09	.11	.11	.11
	총자녀수	-.15	-.08	-.16	-.08	-.06	-.07	-.07	-.06
	교육수준	-.02	-.00	.01	-.02	-.17 <sup>+</sup>	-.17 <sup>+</sup>	-.15	-.14
	종교유무	.04	.08	.08	.03	.03	.03	.06	.06
	월평균소득	.16	.14	.07	.15	.22*	.22*	.21*	.19 <sup>+</sup>
	소득만족정도	.04	.00	.02	-.00	.01	.00	.00	.01
	직업	.09	.05	.07	.08	-.06	-.09	-.08	-.11
	맞벌이유무	.07	.21*	.21*	.15	.06	.08	.08	.10
	가족유형	-.04	-.02	-.05	-.04 <sup>+</sup>	-.16 <sup>+</sup>	-.16 <sup>+</sup>	-.15 <sup>+</sup>	-.16 <sup>+</sup>
	출생순위	.12	.05	.08	.11	-.03	-.01	-.01	-.00
	원가족유형	-.17	-.20*	-.19 <sup>+</sup>	-.17	-.07	-.08	-.09	-.07
	모취업유무	-.17	-.20 <sup>+</sup>	-.16	-.18	-.10	-.10	-.09	-.09
	원가족경제수준	-.01	-.11	-.09	-.07	.01	-.02	-.02	-.03
	원가족건강성		.52***				.10		
모의 독립성 조장						.03			
모의 수용						.48***			
모분화_삼각화						.02			
부의 독립성 조장						-.08			
부의 수용						.48***			
부분화_삼각화						.07			
F		.89	2.96**	2.32**	2.26**	.96	.97	.95	1.10
R <sup>2</sup>		.14	.36	.34	.34	.10	.11	.12	.14
ad.R <sup>2</sup>			.24	.19	.19		-.00	-.01	.01
ΔR <sup>2</sup>			.23***	.20***	.20***		.01	.02	.04

\*p<.05, \*\*p<.01, \*\*\*p<.001, +p<.10

재의 가족 안에서 유사한 상호작용의 패턴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허기순, 2004; Crowell & Feldman, 1988).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원가족 경험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전반적으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서 원가족 내 경험이 현재 가족의 자녀양육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슬기(2005)는 아버지는 자녀양육에서 주변 상황을 지각하기보다는 경제활동 참여자이면서 가족 부양의 의무를 잘 수행하여 스스로 유능한 아버지라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에 비해 자녀양육에 관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 여건으로 제한이 되어 있음으로 단 시간에 효율적인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단시간에 좋은 양육자가 되는 것의 기본은 자신의 원가족에서 부모와의 경험이나 부모가 자신에게 보인 양육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경향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아버지의 부모교육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이다. 아버지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원가족내 경험을 명확하게 자각하도록 돕고 그를 바탕으로 좋은 양육자의 기준과 자신이 인지하는 것과의 괴리를 파악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에 비해 원가족 경험의 영향력은 낮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총 자녀수와 원가족 유형, 원가족에서 모의 취업유무에 따라서도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원가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과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변인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은 어머니에게 있어, 부모의 과거 특성이나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양육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지각은 세대 간 전이를 통해 자녀양육행동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결과는 아버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부모와의 관계를 지각하는 것에 기인하기보다는 현재 어머니 자신이 처한 사회환경적 요인이나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자녀양육 어려움은 자녀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지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혔듯이 양육행동은 부모의 원가족 경험을 비롯하여, 생태학적 관점에 따라 부모 자신의 특성 및 인성과 아동의 특성, 나아가 부모가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역할 기대,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변인과의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어머니에게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양육부담에 대한 부분과 연구 대상자를 첫 자녀가 유아기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정시킨 점으로 인해 원가족 경험이 양육행동에 주요변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앞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연구에 있어 부모의 원가족 경험 외 양육과 관련된 과거특성 및 현재 양육환경 등의 포함하여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총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의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양육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원가족 경험의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표집되었으므로, 지역적 측면과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의 부모들로 제한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원가족 경험은 성인 자녀가 어린 시절에 원가족에서의 경험을 회상하여 측정하는 자기보고식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노년기 부모이거나 이미 생존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회상을 할 때 과거 기억에 대한 재해석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다. 또한 성인으로 자라 자신의 자녀를 키우게 되면서 부모에 대한 주관적인 관계 지각이 과거 어린 시절에 비해 긍정적으로 바뀌어졌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응답에 대한 정확성과 이를 객관화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셋째, 부모의 양육행동은 개인적, 가족관계, 양육지원 환경 변인 등에 의해서 다양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경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가 원가족 내의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 부모의 과거 특성 변인과 함께 현재 특성과의 관계까지 포함시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명자(2007).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 및 자아분화와 부부 갈등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소현(2005).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 분석 : 문제군과 일반군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권정란(2005).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기분화에 따른 부부 적응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자(2003).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체계 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미라(2001). 부부친밀도에 미치는 요인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수연(2001).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순기(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순재(1996). 청소년의 기질 및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분화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태현·김경자(2004). 기혼 남녀의 원가족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체계기능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6(1), 3-35.

김희주(1997).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도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도현심·김민정·박보경·황영은(200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85-195.

문세민(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위축행동 및 우울.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희선(1994). 어머니의 자아분화수준과 자녀양육태도의 관계 -Bowen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성연(1995). 인간발달 I. 서울 : 과학교육사.

박성연·임희수(2000). 2-3세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부모에 대한 애착표상과 및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1(1), 59-72.

박성연·전현진(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69.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과 관련된 어머니 양육목표, 양육행동, 또래관계 관리 전략.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손승희(2002).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또래 유능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기현(200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박성연(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40(1), 53-68.
- 오성심·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연구 노트. *서울 행동과학연구소, 의학*, 19(3).
- 유은희(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 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은희·전춘애(1995). 모의 자아분화수준과 모자간의 갈등이 청년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 137-153.
- 이미숙(2005). 어머니의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슬기(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원(2002). 부부갈등과 관련된 원가족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선·정문자(2007).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역할만족도 및 배우자의 부모역할지지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5), 85-94.
- 이혜승(2000). 부모의 아동기 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선웅(2008). 원가족 경험이 부부친밀감과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혜자(2001). 영유아기의 어머니 양육행동에 대한 자녀세대의 지각. *한국영유아보육학*, 25, 283-304.
- 전연진(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현진(1996).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효정(2003). 어머니-유아 애착의 세대간 전이의 매커니즘 :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 유형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3), 159-174.
- 정문자(역)(1996).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Cater, B., & McGoldrick, M.(1989).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 정문자·전연진·김진이(2004).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자녀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2), 133-150.
- 정미경(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적응.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승(2000). 어머니 자신의 부모 애착 및 양육행동과 자녀 애착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소희·정혜정(2008).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기분화가족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73-889.
- 진달님(2008).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가족건강성 및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옥(2004).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기원(200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결혼만족도와 양육행동과의 관계.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난경(2003). 부모의 원가족 분화수준과 자녀양육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숙(2006). 부부갈등과 원가족과의 상관관계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미(1997). 원가족 척도 연구 : 결혼 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상희(2007).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기순(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부부관계, 심리적 특성이 유아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cker, W. C.(1964). Consequences of differen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 Y.: Russell Sage Foundation.
- Belsky, J. & Isabella, R. A.(1985).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to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hande Following the Birth of a baby : A Retrospective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 342-349.
- Belsky, J. & Vondra, J.(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Luster, T. & Okagaki, L.(Eds.). *Parenting :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 Lawrence Erlbaum, 227-250.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nson, M. J., Larson, J., Wilson, S. M. & Demo, D. H.(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663-672.
- Block, J. H.(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 Boszormenyi-Nagy, I., & Ulrich, D. N.(1981). Contextual family therapy. in A. S. Gurman & D. P. 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Y: Brunner/Mazel.
-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Y.: Jason Aronson.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2 : Separation. N.Y.: Basic Book.
- Bretherton, I.(1991). The Roots and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On Marris, P., Stevenson-Hinde, J. & Parkes, C.(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N.Y: Basic Books.
- Cohn, D. A.(1990).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152-62.
- Crowell, J. a. & Feldman, S. S.(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8, 976-984.
- Davies, P. T., & Cummings,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411.
- Hoffman, J. A.(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Johnson, V. K.(2001). Marital interaction, family organization and differences in parenting behavior : Explaining variations across family interaction contexts. *Family Process*, 40(3), 333-342.
- Lieberman, J. N.(1977). *Playfulness* : Academic Press.
- Luster, T., & Okagaki, L.(1993). *Parenting :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rtin, B.(1975). Parent-child relations. In F. D. Horowitz(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4).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rris, D.(1980). Infant Attachment and Problem Solve in the Toddler : Relations to Mother's Family Hist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Nichols, M. P. & Schwartz, R. C. (2001). *Family Therapy : Concepts and Methods*. Boston, London, Sydney & Toronto : Allyn & Bacon. 김영애 외 7인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Rick, M. H.(1985). The Social Transmission of parental Behavior : Attachment Across Generations, In Bretherton, I & Waters, E(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66-104.
- Someya, T., Uehara. T., Kadowaki, M., Tang, S., & Takahashi, S.(2000). Effect of gender difference and birth order on perceived parenting style, measured by the EMBU scale, in Japanese.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53, 77-81.
- Sroufe, L. A., Jacobvitz, D., Mangelsdorf, S., DeAngelo, E., and Ward, M. J.(1985). Generational boundary dissolution between mother and their preschool children : a relationship systems approach. *Child Development*, 56, 317-325.

□ 접수일 : 2010년 01월 14일

□ 심사일 : 2010년 02월 01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03월 18일